

중국 차량편의점 등장

aT청뚜지사

2017년 무인소매 등 신 소매형태의 변혁에 따라 최근에는 “차량편의점”도 등장함. 미국의 우버(Uber) 택시를 예로 들 수 있음. 운전사의 자가용 차량에 편의점을 차리는 방식으로 운전석 옆에 작은 상자를 놓아두고 안에 껌이나 초콜릿 등과 같은 제품들을 넣고 승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임.

12월 5일 중국에서도 “魔急便Mobile Go”라는 차량편의점이 등장함. 현재 항주에 투입하여 운영 중. 모바일 콜택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승객들은 앞좌석 등받이와 좌석사이에 끼인 박스 내의 음료수, 식품, 생필품 등 제품들을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구입할 수 있음.

차량편의점은 모바일 콜택시 플랫폼의 정규 기사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편의점을 위한 보증금 299위안을 지불하되 심사가 통과된 후 지정된 곳에서 활성화 및 차량편의점에서 판매할 제품들을 수령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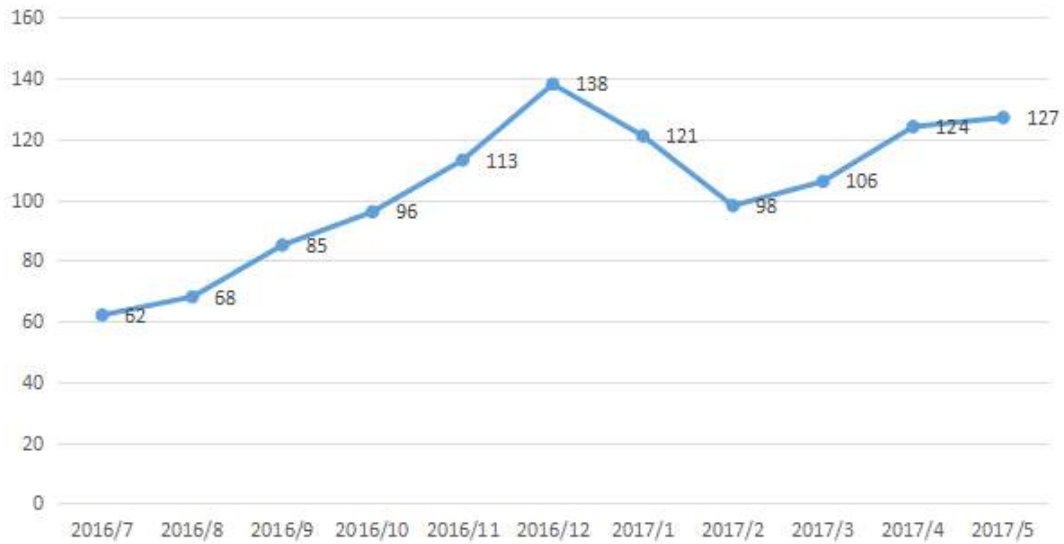
또 다른 “魔急便Mobile Go”보다 더 빨리 차량편의점을 운영한 선전에 소재하고 있는 “gogo”회사는 올해 7월까지 이미 3000여량이 택시가 가맹하였으며 두 개의 버스회사와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베이징, 타이위안, 난징 등 지역에서 “gogo차량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개수는 40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gogo차량편의점”책임자의 서술에 따르면 차량편의점의 핵심 장점은 고밀도 승객들이 유동량임. 매일 평균 60여명의 승객들이 인터넷 콜택시를 이용 탑승하고 있으며, 이는 월 평균 1,800명, 반년에 10,000명이 넘는 수치임. 승객들의 평균 탑승시간은 평균 20분으로 이는 차량편의점을 이용하고 소비량을 높이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중국 전국 택시차량의 규모는 137만량으로 운송한 승객들은 406억 명으로 어마어마한 유동량을 보여주고 있음.

“gogo”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살펴본다면 2016년 5월 차량편의점이 출시해서부터 금년 5월까지 이미 53만 명이 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차량편의점 54만개의 제품들을 판매하였으며 매출액은 736만 위안에 달함.

【차량편의점 일일평균매출액】

(단위: 위안)



【차량 탑승 승객수량 집계】

(단위: 명)



자료출처: 푸드데일리, aT청뚜지사